

회원병원 소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전이제발암병원
Catholic Comprehensive Hospital For Advanced Cancer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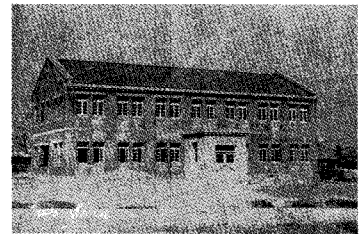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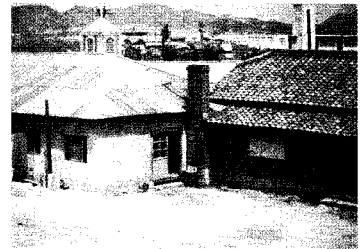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955년 전쟁고아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고,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서 56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발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친환경 신관을 완공하였고 최첨단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연혁

- 1955.6.27 병원개원 (초대 병원장 김영식 베드로 신부)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65 (현 위치)
진료과(6개) : 내과, 외과, 소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마취과
규모 : 대지 1,368평, 건물 119평, 병상 41베드
- 1962.4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 편입 '인천지역 최초 대학병원'
- 1963.3 한국순교복자수녀회로 병원 경영 이관
- 1973.1 인턴 수련병원 지정
- 1976.3 전시동원 의료기관 지정
- 1977.9 종합병원인가
- 1980.3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보사부 인가)
- 1988.9 임상의학연구실 개설
- 1995.8 성모자애병원보 창간
- 1996.2 제4세대 CT, MRI 도입
- 1998.2 가톨릭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성모자애병원 지부 설치
- 2002.6 PACS 시행
- 2003.4 건강관리센터 개설
- 2004.3 국내 최초 소장내시경 실시
- 2005.6 개원 50주년
- 2005.9 국내 최초 토모테라피 도입
- 2005.10.1 인천교구로 병원경영 이관
- 2006.4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인천지역 '최우수병원 선정'
- 2007.10 건강증진센터, 주차빌딩 완공
- 2008.7 인천성모병원 선포식 ('인천성모병원'으로 병원명 변경) 및 신병동 기공식
- 2008.8 국내 최초 단일공법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성공
- 2008.12 5대수술(간암, 대장암, 위암,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잘하는 병원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 2009.2 세계 최초 단일공법 복강경하 부인암 수술 성공
- 2009.9 토모테라피 1,500례(시술 3만 건) 돌파
- 2009.11 2009년도 병원신임평가 결과 최고 점수 획득 (94.62점)
- 2010.6 임상연구에 관한 국제 인증(AAHRPP) 전면 인증 획득
- 2010.9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 '공공지속가능경영 부문' 수상
2010 메디컬코리아 대상 최우수 지역거점병원 선정(한국경제신문)
- 2010.11 세계최초 Skyra 3T MRI 도입
- 2010.12 의료복합동 완공(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
- 2011.2 경인지역 최초 로봇수술 성공
- 2011.2 국내 최초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 개원
- 2011.3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학병원 뇌신경센터부문 대상 수상





‘최초’, ‘최고’의 수식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역사는 훌륭한 의료진과 탄탄한 진료시스템이 증명하듯 ‘최초’, ‘최고’의 수식어가 많다.

2004년 3월 국내 최초로 소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세계 최초 단일공법 복강경하 부인암 수술 성공(2009.2), 인·부천지역 최초 다빈치 로봇수술 성공,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위암, 췌장암, 심장혈관확장술, 엉덩이관절치환술 수술경험 많은 병원 선정(2007.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험 5대 수술(간암, 대장암, 위암, 고관절치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잘하는 병원 선정(2008.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진료와 연구를 선도하는 첨단 디지털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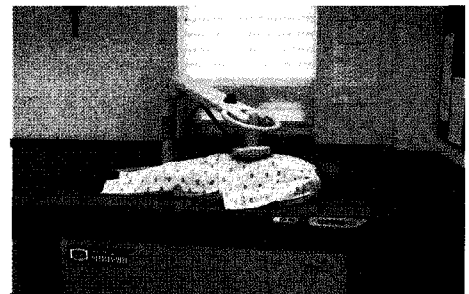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마크

크를 획득했다.

이는 2004년부터 실시된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에서 매년 ALL ‘A’를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서도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또 한 번 그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료기관인증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증’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수준의 질이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

인천성모병원은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갖추었다. 병원 전 층이 하루 종일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인테리어와 환자의 치유를 위한 환자 중심의 공간배치 및 동선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층별 컬러를 달리하고 성화로 벽면을 장식함으로써 환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기가 세상과 처음 대면하는 곳인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전혀 나오지 않는 천연 나무목재가 사용된 바닥재와 벽지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태아기에 노출된 유해인자의 영향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사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테리어를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5개의 수술실 모두에 펜던트(천장에 매단 수술기구)를 설치해 수술의 효율성을 높였고 클린 존과 더티 존을 완벽하게 구분해 공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여 Class 150 이하의 무균수술실을 갖추는 등 완벽한 감염 관리체제를 구현했고, 3D Live Surgery 시설을 통해 실시간 화상 컨퍼런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첨단 의료장비

의료장비 역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640 슬라이스 3차원 영상컴퓨터 단층촬영(MDCT), 3T(테슬라) 자기공명영상(MRI)을 도입하여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고, 지름 2mm의 암세포까지 찾아내 병소에만 강한 방사선을 쏘이는 로봇 정위방사선 수술 치료기인 노발리스를 비롯하여 무혈·무통 초음파 암 치료기인 하이프나이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가장 많은 치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토모테라피와 방사선 치료장비 C-라이낙을 비롯하여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열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 몸 속에 고주파를 투과시켜 세포 주변 온도를 43℃ 정도로 높여 암세포를 없애는 온열치료를 갖추고 최첨단의 암 진단 및 치료장비를 통한 최강의 하드웨어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최강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진료 시스템이다. 이미 국내 최정상 반열에 올라있는 뇌신경센터를 비롯하여, 소화기센터, 로봇수술센터, 관절 척추센터, 유방·갑상선센터 등 10개 전문센터에 대해 55년간의 진료 노하우를 집약하여 환자 중심의 첨단 시설과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원스톱 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어렵다는 뇌수술! 기적을 만들어 내는 뇌신경센터

인천지역 최초 뇌졸중 전문치료실, 뇌신경질환의 통합진료를 위한 인프라 완비

뇌신경센터는 2005년부터 뇌졸중 치료 활성화 TF팀을 가동하여 환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뇌졸중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기에 치료 프로세스의 핵심 포인트는 신속과 정확함이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30여 명의 뇌졸중 전문 치료팀에게 연락이 이루어지고 모든 검사가 뇌졸중환자를 우선으로 응급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다.

이렇게 빠른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뇌졸중의 치료는 신속한 응급조치가 환자의 생명과 함께 후유증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바로 환자의 삶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치료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성모병원 뇌신경센터의 뇌졸중 치료는 크게 4가지를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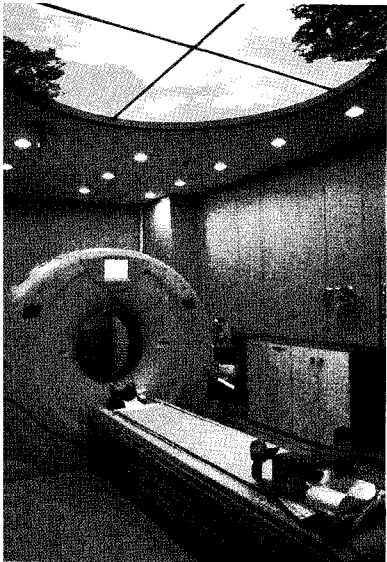
첫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의 최소화이며, 셋째는 조기 재활로 신경학적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 네 번째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지역 최초로 뇌졸중 전문 치료실과 뇌졸중센터를 만들었고 신경외과 한영민 센터장을 중심으로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21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50여 명의 치료팀이 한 팀을 이루어 뇌신경의 모든 분야에서 24시간 신속한 치료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를 비롯한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종양, 뇌혈관기형과 함께 파킨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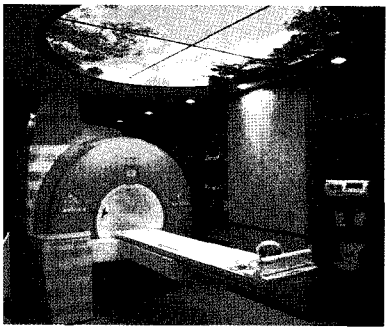
안면 떨림, 사경증, 방사선 수술까지 뇌신경 질환의 거의 모든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뇌신경센터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과 함께 30여 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진료를 통한 우수한 치료 결과로 널리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뇌혈관 수술 및 뇌종양, 뇌기능성 장애 등의 어려운 뇌수술 분야에서는 최고의 의료진과 수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치료결과도 우수하다. 또한 뇌졸중 조기검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 예방 → 진단 → 치료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듯 인천성모병원 뇌신경센터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병원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최고 점수로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아왔다. 센터장인 신경외과 한영민 교수는 “이러한 성과는 유기적인 환자 중심의 진료 협진 시스템 기반 아래 구성원 각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성실하게 치료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최소침습수술 분야의 선두주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소침습수술 분야에서 인천지역 여타 병원들과 비교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4월 인천 최초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을 필두로 소화성 궤양수술, 충수절제술, 비장적출술, 탈장수술 및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을 복강경으로 시행함으로써 인천지역 외과계 최소침습 수술을 선도했고 2004년 6월에는 국내 최초 전복강경하 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현재 암 수술의 77%가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식도암 95%, 위암 60%, 대장암 92%) 복강경 수술이란 배를 절개하지 않고 0.5 ~ 1cm 정도의 구멍을 통해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 수술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과 감염비율은 각각 7%와 1.4%로 개복수술 비율인 8%, 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김진조 교수는 “개복 수술은 흉터도 크게 남기지만 상처가 아물면서 광범위한 조직의 대사과정을 수반해 예기치 않는 합병증과 이로 인한 회복 지연을 초래한다. 따라서 복강경 수술은 흉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출혈이 적으며 회복시간도 개복수술보다 훨씬 짧을 뿐 아니라 수술 후 통증도 훨씬 덜한 것이 장점이다.”고 말한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용욱 교수팀은 흉터가 거의 없는 단일공법을 이용한 수술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공법 복강경수술이란 구멍 하나만을 배꼽 안으로 뚫고 내시경을 포함한 수술 기구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수술하는 방식이다. 김용욱 교수팀은 2008년에 봉합 과정을 포함한 완전 자궁절제술과 자궁근종절제술을, 2009년 2월에는 단일공법 자궁경부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고, 2009년 3월 부인과 단일공법 수술 100례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500례를, 이번 2011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과 1,000례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9월 19일 Live Surgery 단일공법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은 이렇게 축적된 최소 침습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올해 2월 인·부천지역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시스템의 최신 기종인 Da Vinci Si Surgical System을 도입하고 로봇수술의 시대를 열었고 로봇수술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로봇을 이용한 심장수술에 성공했다. 로봇수술 기기를 활용한 심장수술은 일부 서울 지역 외에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어 최첨단 로봇수술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자는 심방 중격 결손으로 진단받은 30대 여성으로 심방중격결손증은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중격(중간벽)에 구멍(결손)이 있는 경우였다. 일반적인 심장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 정중앙을 절개해 흉터가 크게 남지만 로봇수술은 로봇팔이 들어가기 위한 4~5cm 길이의 작은 상처밖에 남지 않아 흉터가 거의 없다.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의 도약

인천성모병원의 진면목은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따뜻한 친절과 신속함, 깨끗함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최상의 첨단진료'라는 미션 아래 전인적인 치료를 위한 원목활동, 가정간호, 호스피스, 사회사업,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길을 내밀고 있고 지역의료기관과 교육, 연구, 진료, 봉사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가톨릭' 이념을 중시한다. 내적, 외적 요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톨릭적 이념아래 전인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동북아 거점 지역인 '인천' 지역에서 최고의 병원을 지향하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외국계 병원에 필적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가지고 환자에 대한 전인적, 신의학적 CARE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2013년에는 서구지역에 메디컬 테마파크를 완공하여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지역중심은 물론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